

안축의 <관동별곡>에 구현된 목민 의식*

김아연**

<차 례>

1. 머리말
2. 안축의 정치사상과 경제론
3. 안축의 <관동별곡>과 목민 의식 형상화
4. 맺음말

<국문초록>

정치적·경제적 폐단이 격심했던 고려 후기 사회에서 안축은 목민관의 자질과 직무 능력을 갖춘 전형적인 신흥사대부로서 유교 덕치의 실현을 통해 백성의 안정된 삶을 지향하였다. 안축이 제작한 경기체가 <관동별곡>은 목민 의식의 구현을 주제로 하며, 내용과 구조도 이를 형상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안축의 목민 의식을 구명하기 위해 안축의 정치사상과 경제론을 밝히는 작업을 선행하였다. 이에 안축의 정치적 사유가 원대 성리학과 맹자의 향산론 및 왕도정치론에 기반하고 있음을 살폈다. 안축은 고려 후기의 현실 문제가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폐단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교적 왕도 국가의 실현'을 정치 모토로 삼고, 자신의 경제론을 '농업을 통한 양민의 경제적 자립의 확보 → 양민의 정착 생활 및 신분 유지 → 유교 교육을 통한 수기치인 및 관학으로서의 성리학의 진흥 → 성리학적

* 이 논문의 초고는 2012년 8월 24일, '한국고시가문학회 제25회 전국학술대회'에서 「안축의 <관동별곡>에 구현된 목민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구술 발표된 바 있다.

** 전남대학교

정치론을 표방하는 정치 세력의 양성 → 유교적 국가 질서의 확립'과 같이 단계적으로 설계했음을 살폈다.

안축이 <관동별곡>에서 목민의를 형상화하고 관동 지방의 승경을 표현하기 위해 당대 신흥사대부가 향유하였던 팔경시 형식을 관습적으로 차용하였음을 살폈다. <관동별곡>의 전체 9장을 작품 전체를 총괄하는 서수(序首) <1장>과 관동 지방의 여덟 절경을 노래한 팔경시(八景詩) 8개의 장(<2장> ~ <9장>)으로 크게 구분하여 내용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중 팔경시 형식을 차용한 <2장> ~ <9장>은 '경계(저녁) → 선계(밤) → 지상계(새벽 → 낮)'과 같이 이질적인 성격을 지니는 공간과 시간의 순차적인 흐름이 융합되어 유기적인 구성을 갖추었음을 확인하였다. 작품의 완성된 내용과 구조를 미루어 <관동별곡>의 소재로 등장하는 관동 지방의 자연은 즉흥적으로 예찬하는 일차적인 자연이 아니라, 성리학적 사대부의 시각에서 관조하는 이차적인 자연으로 규정할 수 있겠다. 그리고 선계에서의 신이한 체험과 지상계서의 새날의 설정을 통해 군주로부터 부여받은 존무사의 권한이 신성하고, 군주를 대신하여 왕화중흥을 이룩하고자 하는 존무사의 임무가 성스러운 것임을 알았다. 이로써 안축의 <관동별곡>이 신흥사대부의 관료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음을 밝혔다.

핵심어 : 경기체가, <관동별곡>, 안축, 팔경시, 목민의식

1. 머리말

안축(安軸, 충렬왕8: 1282~충목왕4: 1348)은 고려후기 원지배기에 활동했던 인물로, 경상도 순흥 출신의 전형적인 신흥사대부이다. 안축은 1330년 5월 30일부터 1331년 9월 17일까지 강릉도존무사(江陵道存撫使)

의 직무를 맡아 강릉도와 쌍성총관부를 순무하였다. 그는 이때의 순무 체험을 근간으로 경기체가 <관동별곡(關東別曲)>을 짓고 기행시집 <관동와주(關東瓦注)>를 엮었으며, 이는 그의 문집 『근재집(謹齋集)』에 수록되어 현전한다. <관동별곡>과 <관동와주>는 공통적으로 관동 지방의 산천 풍물과 이를 대하는 작자의 소회 및 목민관의 다짐을 작품 전반에서 담고 있다.

고려시대에 향유하였던 국문시가 중 장르를 불문하고 목민의식을 노래하는 작품은 드물다. 이러한 점에서 안축의 <관동별곡>은 우리 시가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안축의 <관동별곡>에 나타난 목민의식 및 애민정신을 다룬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안축의 목민의식의 원류로 규정할 수 있는 그의 정치적 사유와 경세론에 근거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원인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신흥사대부가 자연 경물을 소재로 삼고 여흥을 가창하기 위해 경기체가를 제작했다는 일반적인 견해가 무의식 속에 고정적으로 작용하여, 연구자가 넓은 시야에서 작품을 분석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들 연구는 대체로 ‘爲 ~景 幾何如’를 중심으로 <관동별곡>에 형상화된 안축의 자연관을 분석하였다.¹⁾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 <관동별곡>이 경기체가가 가지고 있던 관료적 성격이 약화된 모습을 보인다고 단정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고려 시대에 향유하였던 경기체가 작품으로 <한림별곡>, <관동별곡>, <죽계별곡>이 현전하지만 조선 왕조를 건국한 사대부 계층이 경기체가를 향유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관동별곡>의 관료적 성격의 약화에 대한 논의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안축

1) 김동욱, 「<관동별곡>·<죽계별곡>과 안축의 시문학」, 『반교어문연구』 1, 반교어문학회, 1988, 79~119쪽. ; 최용수, 「안축의 <관동별곡>에 대하여」, 『배달말』 23, 배달말학회, 1998, 251~282쪽. ; 한창훈, 「근재 안축(1282~1348)론」, 『우리어문연구』 14, 우리어문학회, 2000, 187~214쪽. ; 박경주, 「고려 후기 문학 담당층의 전개양상과 경기체가」, 『국제어문』 25, 국제어문학회, 2002, 33~57쪽. ; 정무룡, 「안축의 <관동별곡> 반추」, 『한민족어문학』 47, 한민족어문학회, 2005, 197~242쪽.

의 경세론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연구 성과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그 까닭은 안축이 남긴 저술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고혜령은 신흥사대부 이곡(李穀)의 활동과 사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안축의 정치사상과 경세론을 미미하게나마 규명하고 있어 주목된다.²⁾ 고혜령은 고려 후기 사대부를 성격 및 시대에 따라 1기, 2기, 3기로 구분하였는데, 1기는 이규보(李奎報)와 같이 무신집권기에 문장과 실무에 능한 사대부이고, 2기는 안향(安珦), 이제현(李齊賢), 이곡과 같이 원을 통해 성리학을 수용한 사대부이며, 3기는 이색(李穡)과 같이 공민왕대의 개혁정치에 참여한 사대부이다. 그는 논의의 과정에서 안축을 2기 사대부로 분류하고, 《관동와주》의 한시 작품과 책문에 기초하여 안축의 민(民)에 대한 인식, 정치관 및 대원의식을 규명하였다.

본고의 논의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며, 본고의 주된 목적은 안축의 정치사상과 경세론을 밝히고 <관동별곡>에 구현된 안축의 목민의식을 살피는 데 있다. 그런데 목민의식은 그것을 실천궁행하는 목민관이 왕화중흥의 주체가 되어 치인하고자 하는 신념, 태도 등을 체계화한 것이므로, 안축의 목민의식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그의 정치사상과 경세론을 살피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정치사상적 접근을 통해 정치적 사유를 규명할 것이다. 이를 근간으로 개혁 정치의 주도 세력으로서 안축이 인식한 현실 문제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경세론을 규명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근재집(謹齋集)』에 현전하는 안축의 저술을 활용할 것이다. 다음으로, 안축이 <관동별곡>에서 당대 신흥사대부 문인 사이에서 유행했던 팔경시의 형식을 차용하여 목민의식을 효과적으로 담아냈음을 입증할 것이다.

2) 고혜령, 「안축의 활동과 사상」, 『고려후기 사대부와 성리학 수용』, 일조각, 2002.

2. 안축의 정치사상과 경세론

고려 후기 사회는 무신집권 체제에서 친정 체제로 점차 회복하고 있었다. 그런데 친정 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신집권기 동안 와해된 군신 관계를 바로잡고, 원 및 고려의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이중고를 겪는 백성의 고통을 해소해야 했으며, 도덕 질서가 붕괴된 현실을 타개해야 했다. 이에 충(忠), 민본(民本) 및 인륜(人倫)에 기반한 유교, 그중 성리학(性理學)이 이 시기의 정치사상으로 적합하였다. 이때 신홍사대부는 군주와 백성을 매개하는 관료로서 『대학(大學)』에서 강조하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덕목을 수련하고, 출사 후에 이 덕목을 행동에 반영하여 경국제세(經國濟世) 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였다. 신홍사대부의 이러한 경세의식은 경세론으로 구체화되어 국가정책으로 이행되었다. 이에 따라 신홍사대부는 1298년에 왕명의 출납과 인사 행정을 관장하던 사림원(詞林院)을 통해 개혁 정치의 주체로 등장하였고, 1347년에 정치도감(整治都監)이 설치되면서 반권문세족적이고 반원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안축의 정치사상과 경세론은 그의 문집 『근재집』에 수록된 저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안축의 저술은 1361년에 홍건적의 침입으로 대부분 유실되었다. 후손들이 <관동와주>를 저본으로 삼아 그의 저술을 증보하여 문집으로 간행하였다.³⁾ 그럼에도 문집에 수록된 산문의 양이 적

3) 안축의 사위 정양생(鄭良生)이 소장한 <關東瓦注>는 홍건적의 침입으로 분실하였는데, 안렴사 류공(柳公)의 도움을 받아 1364년에 청주에서 <관동와주>를 개판하였고 결락된 부분은 안축이 구수해 주었던 것을 통해 바로 잡았다(辛丑冬 紅賊寇京 家藏舊本皆失 艱於復得 常以爲恨 甲辰春 余出判清州 按廉使柳公得其本 屬余曰 吾欲爲之刊行於世 子之於謹齋爲甥也 勉之哉 余於是 欣然而喜 鳩工鋟梓 其脫誤 則嘗在側聞其口授 姑以所聞正之 至正二十四年甲辰仲秋旬 鄭良生書(『謹齋集』 권1, 「跋」)). 그 후 1445년에 안축의 현손 안송선(安崇善)이 증보하여 간하였다(經紅寇 家書散失 可勝歎哉 余承祖先之餘蔭 又蒙聖明之謬 叨文翰之任 凡詩歌之作 足以勸戒者 固當采錄 以示於後 況我祖先之遺藁 其可忍視湮沒而不復傳耶 自天曆以還 至于今百二十餘祀矣 今讀其詩想其氣 儼然若聽音容而侍杖履也 不勝悲感 欲蒐輯逸

어 안축의 정치사상과 경세론을 규명하는 데 자료의 한계가 있다. 본 장에서는 안축의 정치사상과 경세론을 밝히기 위해 안축의 책문을 주 자료로 활용하기로 하며, 논의의 전개상 필요에 따라 산문 및 《관동와주》에 수록된 한시 작품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기로 한다.

2.1. 정치사상

『근재집』에 수록된 책문 <제책(制策)>은 안축이 1324년에 원의 제과에 입격할 때 제출한 답안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도현철은 이 책문이 『어시책(御試策)』⁴⁾에 수록된 1324년 원 제과 책제 및 내용과 다르다고 언급하면서, 『근재집』에 수록된 이 책문을 모의 문제로 추정하고 있다.⁵⁾ 동시(東詩)와 같이 과거 준비생이 모의 답안을 작성한 것을 후손이 문집에 수록한 관행에서 보면, 이러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변숙희는 1324년 갑자과의 진사과 시험에서 한인·남인의 책제는 “옛날에 성왕이 천하를 통치하고부터 초정을 중시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래서 순임금이 제위를 계승하였다(自昔聖王之治天下 罔不在初政 故舜之嗣位也).”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어 『근재집』에 수록된 책제의 내용과 다르며, 『근재집』의 책문과 이곡의 책문을 비교하면서 두 책문의 체제 형식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⁶⁾ 여기에서 안축이 원 제과 시험장에서 제출한 대책문에 대한 진위 여

篇 得膾炙人口 表表於世者 若干首 以附其後 復錄諸梓 益廣其傳 期於不朽 後之君子 苟能以此篇 知我祖先文章事業之盛 則其所以期不朽者 豈特詩文而已哉 正統十年乙丑仲春下澣 玄孫資憲大夫(『謹齋集』 권1, 「記」, <跋>)).

- 4) 『御試策』은 1315년부터 1333년 사이에 원 제과에 합격한 급제자의 대책문을 엮은 것으로, 과거 준비생의 수험서로 활용되었다. 『어시책』의 체제, 원 제과 급제자 정보 및 이본의 서지사항은 천혜봉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천혜봉, 「조선조의 을해소자체목활자본 『御試策』」, 『서지학연구』 15(서지학회, 1998), 32~33쪽 참조).
- 5) 도현철, 「안축의 대책문과 이민족 대책」, 『한국사상사학』 38(한국사상사학회, 2011), 61쪽.
- 6) 『謹齋集』에 수록된 안축의 책문과 『御試策』에 수록된 이곡의 책문의 비교는 변숙희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변숙희, 「원대 과거제와 고려진사의 응거 및 수관」, 『동양사학연구』 104(동양사학회, 2008), 134쪽 및 137쪽 참조).

부를 가리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근재집』의 책문이 안축 후대의 과거 준비생에게 영향력 있는 텍스트이고, 안축의 정치사상 및 경제론을 살필 수 있는 자료라는 점이다.

1265년 원 세조(世祖, Khubilai)는 성리학자 허형(許衡, 1209 ~ 1281)의 「시무오사(時務五事)」를 수용하여, 원이 중원을 다스리는 데 적용될 치인리학(治人之學)의 이념으로서 성리학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안축의 책문은 이를 반영하듯 원의 이민족 대책과 유교 교화를 결합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그 출처는 당 개원 연간에 있었던 조정의 논의를 기술한 『자치통감(資治通鑑)』의 기록⁷⁾이다. 안축이 작성한 책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의 집권기와 당의 집권기에 토변에서 사자를 보내 『모시(毛詩)』, 『춘추(春秋)』 및 『예기(禮記)』를 구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 일을 놓고 한의 우휴열(于休烈)과 당의 배광정(裴光庭)은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우휴열은 토변이 경서를 얻어 군사를 쓰는 전술 책략을 알게 되면 도리어 한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염려한 반면, 배광정은 토변에게 경서를 주면 토변을 훈도하여 제어할 수 있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안축은 이 중 배광정이 충신예의를 들어 대의를 세우고 군주의 덕화를 천하에 미치게 하였으니 경전의 본질을 안다고 평가하였다. 더불어 안축은 사서오경을 통해 유교의 도를 확립하고 풍속을 변화시켜 세상을 교화시키는 ‘교화론’을 제시하였다. 다음에서 제시한 글은 안축이 작성한 <제책>의 일부로, 『모시』, 『춘추』 및 『예기』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

경서는 도(道)를 실어서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리는 도구이다. 사서는 일을 기록하여 후세에 권고하고 경계하는 큰 법이다. 옛날에 성현이 경서를 짓고

7) 辛未 遺鴻臚卿崔琳使於吐蕃 琳神慶之子也 吐蕃使者稱公主 求毛詩春秋禮記 正字於休烈上疏 以爲東平王漢之懿親 求史記諸子 漢猶不興 況吐蕃 國之寇仇 今資之以書 使知用兵權略 愈生變詐 非中國之利也 事下中書門下讓之 裴光庭等奏 吐蕃 蠶昧頑 囂 久叛新服 因其有請 賜以詩書 庶使之漸陶聲教 化流無外 休烈徒知權略變詐之語 不知忠信禮義 皆從書出也 上曰 善 遂與之(『資治通鑑』 권213, 「唐紀」 29, 개원 19년(731)).

사서를 닦은 뜻은 그 쓰임에 있는 것이니 피차 다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천하가 이를 같이 하려는 것에 있다. …… (중략) …… 무릇 경사는 우리 유자의 업이며, 배우는 까닭은 반드시 이를 쓰려고 하는 것이다. …… (중략) …… 무릇 『모시』는 성정에 근원하고 사람의 마음(心)에서 발하여 부녀자의 거처하는 곳에서부터 향리와 나라에 이르기까지 사악함과 바름으로 인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춘추』는 공자가 주나라 말기에 도가 행해지지 않음을 탄식하고 후세의 난을 염려해서 직필로 王法을 실어 난신적자가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선을 본받고 악을 경계할 수 있게 한다. 『예기』는 주나라 이전에 성인이 계승한 것을 제정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제 역할을 하게 하고 상하를 분별하고 백성의 뜻을 안정시킨다고 하였다. 그래서 『모시』, 『춘추』, 『예기』라는 성인의 경전을 통해 효(孝)와 경(敬)이 서서 가도(家道)가 바르게 되고 충신예의(忠信禮義)가 일어나고 천하가 태평해지며 사방 오랑캐에 행해지면 왕의 덕화가 널리 퍼져 오랑캐가 교화될 것이다. 당 태종부터 현종에 이르기까지 문교가 퍼졌고 토변이 비록 사리에 어두워 여러 번 배반하였으나 잘못을 뉘우쳐 개과천선하고 성인의 경전을 청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 으로서는 그 요청을 계기로 시서(詩書)를 주고 예의(禮義)를 가르쳐서 본연 지성(本然之性)을 확충하면, 임금을 높이고 윗사람을 친애하는 마음이 더욱 굳어져서 다시는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⁸⁾

위의 글에서 안축은 경전을 가리켜 ‘도를 실어서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리는 도구’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안축이 경전의 본질을 ‘도’, 경전을 도의 수양에 필요한 ‘도구’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도는 이(理)

8) 經載道 所以平理天下之大具也 史記事 所以勸戒後世之大法也 古之聖賢 作經修史之意 其爲用也 不在彼此之殊 而與天下共之者也 …… (중략) …… 夫經史者 吾儒之業也 所以學者 必欲用之 …… (중략) …… 夫詩者 原於性情 發於人心 而自閨門之內 至鄉黨邦國 因其邪正 或美或刺 故吟詠之間 感人深入 而其好善惡惡之心不能自己者 必於此而得之 春秋者 孔子生於周末 嘆斯道之不行 而慮後世之爲亂 以直筆寓王法 或褒或誅 然後亂臣賊子懼 故人之法善戒惡 不敢爲亂者 必於此而得之 禮記者 三代之禮至周而成 承前聖之制 纂而爲書 以傳後世 凡禮儀三百 威儀三千 以此父子君君臣臣 而辨上下定民志 故辭遜揖讓 不敢凌上慢下者 必於此而得之 舉此聖經 行於內 則孝敬立而家道正 行於外 則忠信禮義興而天下平 行於四裔 則聲教廣而蕃夷化矣 唐自太宗至玄宗 明君繼作 文教所被者廣 故吐蕃雖龔昧數叛 而悔過遷善 來請聖經 爲唐計者 因其有請 賜以詩書 教以禮義 而擴充其本然之性 則尊君親上之心 益固而不復離叛矣(『謹齋集』 권3, 「策」, <制策>)

를 받은 후에 성(性), 곧 인간의 마음(心)을 갖게 된 것이고, 경전은 기(氣)를 받은 후에 형태(形)를 갖게 된 것이다. 이것은 성리학의 이분법적 사고인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모시』, 『춘추』, 『예기』는 형식과 내용이 각각 다르나, 공통적으로 경전을 통해 수기치인(修己治人)의 도를 실천하고 직분을 바로잡는 정명을 인지하며 선악을 엄격히 판별함으로써 도의 개인적·사회적 실현을 지향한다고 하겠다. 이것이 곧 안축이 언급한 경전의 본질이자, 원대 성리학의 핵심인 것이다.

안축은 『모시』, 『춘추』, 『예기』 등 성인의 경전을 통해 효(孝)와 경(敬)이 서서 가도(家道)가 바르게 되고 충신예의(忠信禮義)가 일어나며 천하가 태평해진다고 하였다. 이는 『大學』에서 언급한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연상시킨다. 주지의 사실과 같이,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중 ‘수신’은 안으로 개인의 자기완성을 지향하는 수기지학(修己之學)의 방법이고, ‘제가치국평천하’는 밖으로 타인과의 질서를 도모하는 치인지학(治人之學)의 방법이다.

안축은 인간의 자기완성을 위해 경전을 자기수양의 수단으로 삼고 효와 경이 정립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효는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정에서 실천해야 할 기본 덕목으로 오륜(五倫)의 첫 덕목인 부자유친(父子有親)과 상통한다. 경(敬)은 주일무적(主一無適), 곧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잡념을 없앤다는 의미로, 도의 이치를 체득하기에 앞서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 거경(居敬)인 것이다. 그런데 효와 경의 의미 맥락에서 이들 간의 선후 관계를 보면, 경이 효에 선행한다. 효를 행동으로 실천하기에 앞서, 몸을 주재하는 마음을 수양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순선한 천성처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뜻을 성실하게 한 뒤에 경전의 내용을 이해하면, 경전의 본질로 통하는 이치(理致)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행동의 시비를 분별할 수 있다. 그러한 연후에 옳다고 판단되는 행동을 정성을 다해 매일 실천하면, 인욕을 떨하고 본연지성(本然之性)을 회복할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의 자기완성은 성의정심(誠意正心)과 격물치지(格物致知)를 내용으로 하고 거경궁리(居敬窮理)를 방법으로 삼

아, 본연지성을 회복하고 성인(聖人)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겠다.

도의 개인적 실현은 사회적 실현으로 확대된다. 안축은 본연지성을 확충하면 임금을 높이고 윗사람을 친애하는 마음이 더욱 굳어져서 배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명분을 중시하는 타인과의 관계는 여러 덕성 중 ‘배반하지 않는’ 신뢰(信)를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신뢰를 전제로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父父子子君君臣臣)’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면 제가에서 효의 실천, 치국에서 충신예의(忠信禮義)의 덕목을 통한 왕도정치의 실현 및 천하 평정에서 국가 전체 또는 나아가 이민족의 교화가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도의 사회적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의 근본이 되는 백성이 있어야 한다. 백성이 가정 및 국가의 질서 회복을 위해 수기치인의 도를 지킨 연후에 군주가 국가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치인지학의 성립을 위해 백성이 흩어지지 않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겠다. 백성이 흩어지지 않으려면 첫째 향산(恒産)이 있어야 하고, 둘째 이민족의 침입에 대비해야 한다.

향산은 가정 및 국가의 경제를 안정되게 하여 향심(恒心)을 지키는 데 유효하다. 향심은 가정의 가장 및 국가의 군주가 그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자, 가장 및 군주의 존재 근거이다. 따라서 가장 및 군주는 가족과 백성을 먹여 살리는 일을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처럼 수기지학은 『맹자(孟子)』에서 언급한 “향산이 있으면 향심을 가지게 된다.”⁹⁾는 가르침에 기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안축이 순흥의 관리로 임명된 채상(蔡祥)에게 <순흥 봉서루 중건 기문(順興鳳棲樓重營記)>을 보내 농사를 지으니 예법을 질책하는 손님이 없게 되고 생업을 잃은 농민이 없게 된 것이 채상의 공이라고 칭찬한 일¹⁰⁾을 이해할 수 있겠

9) 有恒産者有恒心 無恒産者無恒心 苟無恒心 放辟邪侈 無不爲己(『孟子』, 「藤文公章句上」)

10) 官無責禮之賓 野無失業之農 吏以之安 歲以之稔 皆公之賜而樓之功也 余聞復新斯樓 山水之得人 喜吾望之不失 記以寄之(『謹齋集』 권2, 「記」, <順興鳳棲樓重營記>)

다.

이민족의 침입은 국가의 존폐와 관련 있다. 이민족의 침입으로 전란이 일어나면, 무너진 정치적·경제적 질서 및 파괴된 사회 제반 시설을 복구하기가 어렵고 삶의 터전을 잃은 백성은 유민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래서 이민족의 침입에 대비하여 변화하는 국제 정서를 주시하고, 주변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안축은 원 주변에서 국제적 역학 구도를 형성하는 동이(東夷), 서융(西戎), 남만(南蠻), 북적(北狄) 등 사이(四夷)를 경서로써 교화하여 평천하를 이룰 것을 제의하였다. 이는 원이 이민족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외교 정책에 부합한다. 당시 원은 세계 국가를 건설하였으나 국가 체제를 확립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한족과 이민족을 구별하기보다 천하의 마음을 얻는 것에 요체가 있고 이를 위해 이민족을 한족의 법으로써 다스리고자 하였다. 이처럼 원은 출제에 제시된 우휴열 및 배광정의 사례를 표본으로 삼아 이민족에게 포용력을 발휘함으로써 국가 및 민생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안축은 거경 및 명분을 중시하는 실천지향적인 원대 성리학파 맹자의 왕도정치론 및 향산론을 정치사상의 기반으로 둠으로써 정치 참여의 정당화 논리를 획득하고 있다. 안축의 정치사상은 ‘군주(君)-신하(臣)-백성(民)’으로 서열화된 신분 질서를 전제하고, 본연지성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수기치인으로 집약할 수 있다.

2.2. 경세론

안축은 자신의 경세론을 전개하고 고려 후기 사회를 개혁하고자 세상에 뛰어들었다. 그는 원의 제과에 합격한 1324년부터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1324년에 성균악정(成均樂正)으로 임명된 이후 1330년에 강릉도준무사에 임명되기 전까지 전법사(典法司), 판도사(判圖司), 군부사(軍簿司), 전리사(典理司) 및 문하성(門下省) 등에서 근무하였다. 이들 기관은 각각 법률, 호구, 군사, 관리 임용 및 왕명 출납 등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따라서 안축은 이 시기에 여러 분야의 기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실무 능력 및 관리 능력 등 정치적·행정적 경륜을 축적하고, 이러한 경륜을 기반으로 고려 후기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모색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웠을 것이다. 이처럼 안축이 실무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정치적·행정적 역량을 배양하였기 때문에, 강릉도준무사로서 군주를 대신하여 강릉도 백성을 위무하고 충목왕대에 신홍사대부의 중심 세력으로서 정치도감에서 개혁 정치를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원 및 고려 이중국가 체제에서 안축이 인식한 현실 문제는 기득권 세력이 자행한 토지 및 양민의 불법 탈점, 공납의 폐단, 향산의 시급 및 인재 양성의 시급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양민 중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해방시키고, 농사를 권장하며, 향교를 재건하였다. 다음에서는 안축이 자신의 경세론을 구현한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안축은 법률, 사송 및 형옥을 담당하는 전법사(典法司)에서 요직을 네 번 맡았다. 그는 1325년과 1329년 사이에 총랑(摠郎)을 시작으로 1331년에 지사(摠郎)를 지냈다. 그런데 1332년 충숙왕의 복위와 1340년 충혜왕의 복위 사이에 파직을 두 번 경험하였고, 그때마다 판서(判書)로 재기용되었다. 안축은 판서를 역임하던 시기에 권세를 등에 업고 백성을 강박하는 신청(申靑)을 처결하는 과정에서 신청의 거짓 발언으로 자신과 더불어 법을 집행하던 감찰집의(監察執義) 윤혁(尹奕), 지평(持平) 이민(李敏) 등과 순군부(巡軍府)의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지만¹¹⁾, 기득권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양민 중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기도 하였다. 이는 이곡이 안축 사후에 남긴 <묘지명(墓誌銘)>에서 알 수 있다. 이곡에 따르면, 안축이 자신의 관직 생활을 회고하면서 “내 평생 들어낼 만한 치적은 없으나, 내가 법을 다스리는 자리에 네 번 올라 백성 중에

11) 令親屬率 二百餘人執 金化郡 吏文世益守等 五十餘人 壓良爲奴婢 毆殺文世及丁延妻 典法判書安軸監察執義尹奕持平李敏等守正 不聽其言 靑矯旨囚巡軍 百計侵擾 罪六也(『高麗史』 권124, 「烈傳」 37, <嬖幸> 2, ‘申靑’ 條)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는 반드시 옳게 다스려 양민으로 삼았다.”¹²⁾고 하였다.

본래 양민은 민전을 소유하고 자급자족의 생활을 영위하였다. 그런데 생업의 터전인 민전이 양민의 소유가 아닌 데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기득권 세력이 정치적 혼란과 원의 침략을 틈타 토지를 겸병 및 탈점하고 농장을 확대하면서, 자생력이 부족한 양민을 토지와 함께 노비로 귀속시키거나 지방 향리와 결탁하고 양민을 강박하여 노비로 전락시키기도 하였다. 이처럼 고려 후기 사회에서는 기득권 세력이 양민의 토지 및 그들의 신분마저 예속하는 사회적·경제적 폐단이 심했다. 또한 원의 침략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기득권 세력의 토지 겸병 및 탈점으로 인해 국가에서 조세를 거둘 수 있는 땅도 감소하여, 국가 재정의 수입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부족한 수입을 채우기 위해 양민에게 가중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다. 세금 부담을 떠안은 양민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유망하거나, 기득권 세력 및 부호에게 몸을 의탁하면서 스스로 노비로 전락하는 삶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축은 기득권 세력의 과행을 시정하고 양민에게 신분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 존립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자 하였던 것이다.

안축은 인삼 및 소금 등 현물 공납의 병폐를 지적하였다. <<관동와주>>에 수록된 <인삼탄(蔘歎)>¹³⁾과 <소금 굽는 집(塩戶)>¹⁴⁾에서 이를 사실적

12) 吾平生無可稱 吾四爲士師 凡民之屈抑奴人者 必理而良之 此其可記者也(『謹齋集』 권4, 「附錄」, <墓誌銘>)

13) 神農著書論草名 草中羅蔘藥最精 一根三枝開五葉 理人神效難具評 年年貢獻聖天子 藥局老醫皆嘆驚 船車商沽競求買 轉賣遠方價不輕 從此官家利其利 歲收編民有期程 物之貴者本自貴 非如凡草賤生成 方民採掘遍山谷 千搜萬索得一莖 何曾計日足銖兩 農衣弊盡披藜荊 是時秋禾臥風雨 畏吏督納忘私營 歸來對妻苦悲泣 已有棄土流亡情 乾坤生物賦藥性 本以至仁濟群生 生民一病出於藥 理藥之藥其誰行 有能移根種遠方 括根無種非所爭 吾民寧作至愚民 不須益智多聰明(『謹齋集』 권1, 「詩」, <蔘歎>)

14) 吾聞古聖人 饗飧而理國 生民但耕鑿 豈曾知帝力 後世利門開 能臣爭獻策 榷鹽起何時 歷代沿不革 本國法最嚴 歲課踰稼穡 自我出關東 傍海親督役 陋居如榻廬 蓬門不掛席 老翁率子孫 寸刻不休息 冽寒汲滄溟 負重肩背赤 酷熱燒煙煤 熏煮眉目黑 門前十車柴 不能供一夕 日煎百斛水 未能盈一石 若不及期程 毒吏來怒責 輸官委如山 轉

으로 묘사하고 있다. <인삼탄>은 원나라 조정에 인삼을 조공하고 관아에서 인삼을 전매하여 이득을 남기는 일에서 백성의 고초가 비롯되었음을 고발하고 있다. 인삼 공출 기한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농부는 인삼을 찾기 위해 온 산을 헤매다가 가시에 찢리고 가을비가 비바람에 쓰러져도 농사를 돌보지 못하고 있다. 농부는 아전의 횡포로 인해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어렵고 아내가 슬피 우는 모습을 보자, 급기야는 삶의 터전을 버리고 유망을 선택하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안축은 이러한 상황을 목도하고 생민의 병이 약, 곧 인삼에서 나온다고 폭로하며,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개탄하고 있다.

<소금 굽는 집>은 세금이 농업 생산량을 초과하는 가운데 아전이 소금 공납의 기한을 맞출 것을無理하게 요구하고 관아에서 소금을 전매하는 일로 백성이 고단하게 되었음을 문제로 제시하고 있다. 삼대가 소금을 굽는 일에 동원되었는데, 잠시도 쉬지 못하고 종일토록 바닷물 백 섬을 달였음에도 소금 한 섬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바닷물을 길러 나르느라 등은 벌겍게 달아오르고, 염호에서 소금을 굽느라 얼굴은 연기와 그을음에 검게 변하였다. 백성은 소금 공출을 위한 격한 노동으로 옷이 헤져 등을 가릴 수 없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관가에서는 소금을 산처럼 높이 쌓아두고 이를 전매하여 관원의 의복을 만들 배와 비단을 사들인다. 안축은 강릉도준무사로 바닷가에서 소금 굽는 일을 감독하면서 백성의 참상을 목견하였는데, 관료로서의 책임의식은 느끼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백성을 돌볼 임금이 계신 궁궐만 바라보고 있다.

<인삼탄>과 <소금 굽는 집>의 내용을 미루어, 안축이 인식하고 있는 공납 폐단의 원인과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짐작할 수 있다. 첫째 값이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인삼과 소금을 공납물 내지는 전매품으로 삼은 일, 둘째 국가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위정자의 학정, 셋째 공납 과정에서 수

賣爲布帛 君王重功臣 賞賜不屯惜 一人身上衣 萬民苦深積 哀哉彼鹽戶 破衣不掩脊
所以困難堪 逋逃晦形跡 若爲東海波 凝作雪山白 官家恣取用 與民俱有益 不然恤爾
生 時時霑慈澤 念此駐行驂 君門九重隔(『謹齋集』 권1, 「詩」, <塩戶>)

반되는 백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넷째 유민의 발생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안축은 두 작품에서 공납 폐단의 원인 및 문제를 파악하고 있음에도 공통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당대에 공납의 폐단이 고착화되어 대책 마련이 어려웠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안축의 개인사를 보더라도 1330년에 충혜왕이 안축을 벼슬에서 퇴출시키지 않는 대신에 ‘강릉도준무사’라는 외직으로 좌천시켰기 때문이다. 이 무렵은 안축이 조정을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시기이므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극복의지를 표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안축은 민생의 참담한 실태를 지나칠 수 없었기 때문에 관료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이를 두 작품에 사실적으로 기록하여 고발하였다. 또한 강릉도준무사의 임무를 마친 후에 개경으로 돌아와서 당대의 개혁 정치를 주도한 이제현, 이곡 등과 이 작품들을 공유하였다. 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 안축이 백성의 시각에서 공납 폐단의 처참함을 인식하고 위정자로서 선정을 펼치기 위해 개선해야 할 현실 문제를 동료 신홍사대 부에게 구체적으로 알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안축은 향산을 실현하는 데 있어 농업 및 농업을 장려하는 목민관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는 고려 사회가 농업 경제를 기반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에서 제시한 글은 안축의 <순흥 봉사루 중건 기문>의 일부이다.

해마다 2월이면 농사를 시작한다. 남쪽 밭에 가는 사람들은 누정 아래로 다니고 서쪽 들로 나가는 사람들은 누정 밖에 줄을 잇는다. 냇물을 트면 빗물이 소용없고 가래를 매면 구름을 기다릴 것 없으니, 이 누정은 오직 산수의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들 풍경을 보며 농사를 독려하는 즐거움도 가졌다. …… (중략) …… 얼마 뒤에 직랑(直郎) 채상(蔡祥) 공이 우리 고을로 부임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이 누정에 대해 커다란 기대를 가졌다. 내가 서울로 돌아갈 때 채 공이 고을에 도착했다. 그는 이 누정에 올라서 과연 산수를 보고 즐거워하고 퇴락한 것을 보고는 탄식했다. 그리하여 목수에게 명하여 다시 세우니 규모가 크고 채색이 선명하였다. 이로써 영남에 있는 누대 가운데서 이와 아름다움을 견줄 것이 없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한

호구를 정하여 세금과 부역을 면제 시켜주고 이곳을 수호하게 함으로써 장구한 계획을 도모하였으니 …… (중략) …… 공은 농사철이 되면 관청의 사무를 일찍 마치고 이 정자에 올라 매일 농사를 살피며 일이 늦거나 나태한 것을 독려하여 상벌을 내렸다. 이에 백성 모두가 스스로 권면하여 늦은 자는 빨리하고 게으른 자는 부지런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관아에는 예법을 질책하는 손님이 없게 되고 들에는 생업을 잃은 농민이 없게 되었으며, 이로써 아전은 편안하게 되고 농사는 풍성하게 되었다. 모두가 공의 덕택이고 정자의 공덕이다. 나는 이 정자가 다시 새롭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고을의 산수를 알아주는 사람을 얻게 된 것을 치하하고 내 바람이 어긋나지 않았음을 기뻐하면서 이 기문을 지어 부치게 되었다.¹⁵⁾

위의 인용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안축이 순흥의 목민관으로 파견된 채상에게 지어준 기문이다. 이 글에서 안축은 농업 생산력의 증대 방법, 농업을 관장하는 목민관의 임무 및 농업을 통해 얻는 경제적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해마다 행하는 농사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려면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안축은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영농법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냇물을 터서 수리시설을 개간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둘째 밭과 들을 가래로 매서 잡초를 제거하여 작물을 무성하게 자라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목민관은 농사철에 매일 농사를 살피고, 농부에게 근면을 권장하고 게으름을 경계하도록 해야 한다. 영농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게으름을 피우면, 영농 기술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백성을 보호하고 농업을 권장하는 목민관 밑에서 농부가 근면한 자세로 영농 기술을 시행하면, 도덕 질서의 회복, 영농의 정상화, 양민의 경제적 자립 및 나아가 국가 재정의 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기

15) 歲二月 農功始作 往南畝者 夾道于樓之下 往西郊者 羅列乎樓之外 決渠爲雨 荷鍤成雲 斯樓非獨山水之美 有觀稼課農之樂也 …… (중략) …… 旣而聞直郎蔡公祥 有吾州之命 余深有斯樓之望 余旣還京 蔡公到郡 登斯樓 果見山水而樂之 見傾圯而歎之 仍命工復構而新之 規模宏麗 彩畫鮮明 凡嶺南樓臺之美 莫之爲比 而又復民一戶爲守備者 以爲長久之計 …… (중략) …… 公或當農月 早放衙登斯樓 日課農功 責就作之早晚 詰服役之勤慢 以示賞罰 民皆自勸 晚者早 慢者勤 爭爲之先 自是厥後 官無責禮之賓 野無失業之農 吏以之安 歲以之稔 皆公之賜而樓之功也 余聞復新斯樓 賀山水之得人 喜吾望之不失 記以寄之(『謹齋集』 권2, 「記」, <順興鳳棲樓重營記>)

대할 수 있다.

안축은 이러한 맥락에서 ‘고을의 산수를 알아주는 사람’인 목민관이 농사의 조건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목민관은 임지의 사정을 이해하고, 국가 재정의 확보를 위해 권농 정책을 지방에 전개하며, 조세를 거둘 때에 정부와 백성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목민관이 임지에서 자신의 임무를 다하였을 때, 고을의 산수의 아름다움과 미풍양속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채상의 행적을 기록한 자료는 현전하지 않지만, 위의 글에서 채상이 봉사루를 중건하고 순흥의 한 호구를 정해 봉사루의 관리를 맡겼으며 농업을 권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채상이 치기지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목민관상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안축은 채상을 통해 지방민에게 횡포를 부리는 목민관과는 상이한, 새로운 목민관상을 제시하고,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채상을 ‘내 바람에 어긋나지 않는’ 목민관으로 여기고 있다. 짐작건대, 안축의 이러한 진술은 한 군주를 모시는 신하의 입장에서 채상이 자신과 함께 개혁 정치의 뜻을 구현할 수 있는 동료라고 인식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다.

안축은 성리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개혁 정치를 선도하는 인물로서 그 자질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썼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양양향교의 신축과 후진 정치가 양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음에서 제시한 글은 <양양의 새 향교 기문(襄陽新學記)>의 전문이다.

관동(關東)은 산수가 기이하고 수려한데 양양(襄陽)이 그 속에 들어 있다. 그 빼어난 정신과 맑은 기운이 반드시 헛되이 축적함이 없을 터인데도, 백여 년 동안에 기이한 재주나 덕을 품은 선비가 이 고을에 나서 인륜(人倫)을 상서롭게 한 자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이것은 산수의 기운에 징험이 없어서이지, 고을 사람의 성품이 착하지 않아서는 아니다. 이 고을이 옛날부터 변경과 이웃하고 있어서 변란이 여러 번 일어나 학교의 도(道)를 닦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국토가 통일이 되어 백성들이 병란을 알지 못하게 되었으니, 성학(聖學)이 거듭 일어나 자제가 날마다 번성하니, 마땅히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육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고을에 부임하는 자는 오직 문서나 작성하는 것을 급무로 삼고, 여기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므

로 산수의 기운이 뭉치고 쌓여서 흠어질 데가 없고, 자체의 성품이 속박을 받아 벗어나지 못하였으니 이 어찌 고을 사람의 불행이 아니겠는가.

내가 이 고을에 와서 노구에게 들으니, 고을 북쪽에 ‘문선왕동(文宣王洞)’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것은 필시 옛날의 학교 터인데 폐해진 지가 오래된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탄식하고, 즉시 고을 사람에게 명하여 그곳에 학교를 짓게 하였다. 고을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여 말하기를, “우리의 뜻도 그와 같다.”고 하고, 기쁨으로 수고하는 것도 잊었다. 이에 과거 동기생인 통주(通州) 수령인 정랑(正郎) 진군(陳君)에게 부서(符書)를 보내어 그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공사가 시작되자, 고을 수령으로 정랑(正郎) 박군(朴君)이 부임해 왔는데, 박군은 또한 글하는 선비 상문(相文)의 아들이다. 실상은 그의 힘으로 내 뜻을 이루었으니, 이 어찌 고을 사람들의 다행이 아니겠는가. 대개 땅의 기운은 있어 쇠한 것이 오래되면 왕성하는 것도 빠르고, 축적된 것이 오래되면 발하는 것도 성하니, 이제부터 집에는 재주와 학문이 있는 손자가 있고, 마을에는 어질고 후덕한 풍속이 있을 터이다. 그리고 나면 산수의 수치를 씻을 수 있다는 내 말이 틀리지 않음을 알 것이다. 그러나 제도가 거칠고 소략하여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 바라건대 뒤에 오는 군자는 한 번 눈여겨볼 것이다.¹⁶⁾

위의 인용문에서 양양향교 신축의 배경, 과정 및 기대효과를 엿볼 수 있다. 양양은 변방 접경 지역인 까닭에 전란이 여러 번 일어나서 이곳의 백성은 학교에서 도를 닦지 못했다. 또한 당대에 개혁 정치의 사상적 기저를 형성하는 성학, 곧 성리학이 사회 전반에 번성하고 있음에도 양양에는 성리학적 인재를 양성하는 관학 기관이 부재한다. 안축은 이러한 사실

16) 關之東 山水奇秀而襄陽居其中 其英靈之精 清淑之氣 必無虛蓄 而於百餘年間 未聞有瑰奇才德之士 出是邑而瑞人倫者 此非山水之氣無驗 而邑人之性不善 蓋是邑 自古隣於藩境 變亂屢興 學校之道不修也 今者區宇混一 而民不知兵 聖學重興 子弟日盛 宜置學校養育人才 而莅是邑者 惟以簿書爲急 而慮不及焉 故山水之氣 盤礴鬱積而無所發 子弟之性桎梏襟裾而無以脫 此豈非邑人之不幸歟 余到是邑 聞之耆舊 邑之北有洞 相傳云 文宣王洞 斯必古之學基 而廢已久矣 余心竊歎焉 卽於其地 命邑人營之 邑人咸喜曰 余之志也 悅以忘勞 於是 府下同年友通州守正郎陳君 監督其役 土役始興 而邑守正郎朴君 來莅任 朴君亦文儒相門之子也 實用其力 以成吾志 此豈非邑人之幸歟 夫地之氣 其衰也久則其旺也暴 其蓄也遠則其發也盛 自今家有才學之孫 里有仁厚之俗 然後有以雪山水之恥 而知余言之不失也 然制度麤疏 事功有闕 望後來君子一寓目焉(『謹齋集』 권1, 「記」, <襄陽新學記>)

을 탄식하고, 옛날에 학교가 있었던 문선왕동에 향교를 신축하였다. 양양 향교의 신축 공사는 통주 수령인 정랑 진군이 감독하였다. 공사가 시작되자, 고을 수령으로 정랑 박군이 부임해 왔다. 박군은 학식이 깊은 상문의 아들이므로, 안축은 박군이 양양의 성리학 진흥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향교 교육의 성패는 고을 수령의 활동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안축이 양양에서 태어날 후대를 위해 앞으로 양양에 부임할 목민관에게도 향교를 돌볼 것을 당부하는 것도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안축은 향교에서 『소학(小學)』, 유교 경서 등을 교육 받아 학재를 갖춘 자체가 집집마다 있고, 미풍이 마을에 전해지며, 양양의 산수만큼 빼어난 정신과 맑은 기운을 지닌 인재가 배출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향교는 지역민을 교화하여 향촌 사회의 질서를 확립하는 곳이자, 성리학에 입각하여 국가의 통치기반을 공고히 다질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안축은 향교의 기능을 인식함으로써, 향교를 설립하여 지방 교육 체제의 정비 및 성리학의 보급에 힘쓰고 성리학 교육을 통해 수신 및 제가치국평천하를 이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안축은 후진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안축의 문하에서 안보(安輔), 안집(安輯), 이곡, 이색 등이 배출되었다. 이들은 지방 토호 출신의 전형적인 신흥사대부이며, 이 중에서 안보, 이곡, 이색은 원의 제과에 합격하여 원에서 관직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안축과 이곡 사후 1351년에 공민왕이 즉위하였는데, 안보와 이색은 공민왕의 개혁 정치 세력으로 현실 정치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공민왕대 개혁 정치는 안축과 친분이 두터웠던 이제현을 필두로 시행되었다. 또한 안축은 충혜왕 복위 원년인 1340년에 동지공거(同知貢舉)를 역임하였는데, 이때 지공거(知貢舉)인 김영돈(金永暉)을 보좌하여 이공수(李公遂) 등 33인을 급제자로 선발하였다. 이로부터 11년 뒤에 공민왕이 즉위하므로, 이공수를 비롯한 안축의 문생이 공민왕의 정치 개혁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는 시간적으로 유여하다고 본다. 여기에 이제현, 안보가 각각 1352년, 1355년에 지공거로

임명되어 문생을 급제자로 선발하였고, 이색은 1367년에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을 역임하면서 성균관을 중심으로 성리학을 진흥시키고 정치 세력을 키웠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보면, 안축의 성리학적 경제론은 동료 신흥사대부 및 후진에 의해 공민왕대에 계승·발전되었다고 하겠다.

이처럼 안축은 원대 성리학과 맹자의 향산론 및 왕도정치론을 경제론의 기조로 활용하였다. 이는 원지배기에 현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적 추구의 결과이다. 안축은 ‘유교적 왕도 국가의 실현’을 정치 모토로 삼았다. 안축은 이러한 정치 모토를 구현하기 위해 자신의 경제론을 단계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짐작된다. ‘농업을 통한 양민의 경제적 자립의 확보 → 양민의 정착 생활 및 신분 유지 → 유교 교육을 통한 수기치인 및 관학으로서의 성리학의 진흥 → 성리학적 정치론을 표방하는 정치 세력의 양성 → 유교적 국가 질서의 확립’이 그것이다. 경제론의 점진적 이행은 원지배기에 원으로부터 고려 왕실 체제를 온전히 지키고 고려사회에 고착화된 폐단을 시정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하겠다.

3. 안축의 <관동별곡>과 목민의식 형상화

안축은 목민관의 자질과 직무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 이곡은 안축에 대해 “공은 마음가짐이 공정하고, 가정을 다스림에 근검하셨고, 말이 편안하고 꾸미지 않았으며, 집에 있을 때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른 빛이 없으셨다. 착한 일을 보시면 칭찬하여 마지아니하였으므로 좋은 평판이 많았고, 악을 보시면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원망이 적었다.”¹⁷⁾고 평하였다. 여기에서 안축이 일상에서 실천한 공정, 근검, 신실한 언행 및 근면은 유가에서 마음과 행동을 경건히 수양하는 데 필요한 덕목이다. 이것은 경신

17) 公處心公正 持家勤儉 發言便便 無通詞 居官矻矻 無倦色 見善則稱之不已 故多譽 見惡則避之不近 故寡怨(『謹齋集』 권4, 「附錄」, <墓誌銘>)

(敬身)의 덕목으로 집약할 수 있는데, 이는 목민관이 실천해야 할 윤리 덕목이기도 하다. 그리고 경신의 덕목을 통해 개인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올바르게 한 연후에, 비로소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 목민관의 윤리 덕목 및 선악의 판단 능력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발휘된다. 앞서 살폈던 안축의 행적 중 안축이 기득권 세력의 토지 탈점으로 인해 노비로 전락한 양민에게 신분을 회복해준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 곧 안축이 목민관의 윤리 덕목으로 경신했기 때문에, 악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며 관료로서 책무의식을 발휘하여 백성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바로 잡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안축의 인물평 및 행적에서 안축이 수신제가의 도를 다하고, 본연지성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며, 항상심(恒常心)을 유지했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위로는 군주를, 아래로는 백성을 도덕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이상적인 관료상임을 알 수 있다.

안축은 <관동별곡>에서 당대에 신흥사대부가 향유하였던 경기체가 형식 위에 관동 지방의 승경을 대하는 소회와 목민관의 포부를 그려냈다. 강릉도준무사로 임명된 그는 목민관으로서 강릉도 백성의 안민(安民)을 위해 자신의 경세론을 강릉도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안축은 경세론이 적용되는 범위가 국가 전반이 아니라 강릉도에 국한되지만, 1인칭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정치에서 소외받는 백성을 위로하고 군주의 덕을 널리 알림으로써 자신의 정치 모토인 ‘유교적 왕도 국가의 실현’을 구현하고 민생 안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하였다.

<관동별곡>은 전체 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9장은 작품 전체를 총괄하는 서수(序首) 1장과 관동 지방의 여덟 절경을 노래한 팔경시(八景詩) 8장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관동별곡>은 국문 시가인 경기체가를 주(主)로, 한시인 팔경시를 종(從)으로 하여 경기체가 의 큰 틀 안에 팔경시를 포섭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체가와 팔경시 간에 형식의 융합이 가능한 것은, 두 장르가 ‘연작시’이고 ‘경치’를 노래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안축이 관동 지방의 승경을 표현하기 위

해 당대 신흥사대부 문인 사이에서 유행하였던 팔경시에서 작품의 형식을 차용했다는 점이다. 팔경시는 ‘승경의 팔경화’라는 <소상팔경시(瀟湘八景詩)>¹⁸⁾의 형식에서 유래하며, 신흥사대부 문인이 작자의 고향 및 부임지의 경치를 시의 소재로 삼아 자신의 문예적 재능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다. 안축은 강릉도준무사 재임 시기에 <삼척서루팔영(三陟西樓八詠)>를 창작하였고, 1345년 백문보(白文寶)가 경상도안렴사로 파견되자 그를 환영하기 위해 일명 <경상도팔영(慶尙道八詠)>이라고도 불리는 <백문보안부상요(白文寶按部上謠)>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안축과 교유했던 이제현, 이곡, 이색 역시 팔경시를 제작하였는데, 이제현의 <송도팔경(松都八景)>, 이곡의 <차삼척서루팔영시운(次三陟西樓八詠詩韻)>, <차정중부울주팔영(次鄭仲孚蔚州八詠)>, 이색의 <한산팔영(韓山八景)>, <금사팔영(金沙八詠)>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실에서 안축이 자신 및 주변 문인들이 팔경시를 창작한 경험에서 영향을 받아, <관동별곡>에 팔경시 형식을 관습적으로 도입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1. <관동별곡>의 내용

18) <소상팔경시(瀟湘八景詩)>는 중국 호남성 동정호 남쪽에 소수와 상수가 합쳐지는 부근의 여덟 가지 아름다운 경치를 제재로 삼아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를 그리고 여기에 삽입한 제화시를 일컫는다. <소상팔경도>는 ‘산시청람(山市晴嵐)’, ‘어촌석조(漁村夕照)’, ‘소상야우(瀟湘夜雨)’, ‘원포귀범(遠浦歸帆)’, ‘연사만종(煙寺晚鐘)’, ‘동정추월(洞庭秋月)’, ‘평사낙안(平沙落雁)’, ‘강천모설(江天暮雪)’ 등 8곡의 그림으로 합쳐 이르는 것이다. <소상팔경도>는 10세기 북송의 문인 화가 송적(宋迪)이 그리기 시작한 것으로 통상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에 전경원은 중국 고문헌 『호남통지(湖南通志)』에 수록된 「소상팔경도시명서(瀟湘八景圖詩并序)」를 들어 육국 시대에 이영구(李營邱, 919 ~ 967)가 송적보다 한 세기 앞서 <소상팔경도>를 최초로 그렸다고 밝혔다(전경원, 『소상팔경-동아시아의 시와 그림』(건국대학교출판부, 2007), 58쪽). <소상팔경도>와 <소상팔경시>의 국내 유입 시기 및 근원은 확실치 않다. 그러나 1185년 명종이 왕명을 내려 군신에게 <소상팔경도>와 <소상팔경시>를 제작하여 바치게 했다는 기록이 전한다(命文臣製瀟湘八景詩倣其詩意摹寫爲圖(『高麗史節要』 권13, 「明宗光孝大王」 2, <乙巳十五年> 참조). <소상팔경시>는 무신정변 이후 이인로(李仁老), 진화(陳淮), 이규보(李奎報) 등 당시의 대표 문인에 의해 주로 창작되면서 유행하다가, 무신정권이 끝날 무렵에 <소상팔경시>의 창작 활동이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화자는 작품 전체를 총괄하는 <1장> 서수에서 왕화중흥을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팔경시의 제작 방식에 따라 관동 지방을 승경을 노래하는 <2장> ~ <9장>에서는 화자 개인의 소회를 담아 목민 의식을 구현하고 있다. 다음은 <관동별곡>의 1장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바다가 겹겹, 산이 첩첩, 관동의 절경에서
 푸른 휘장 붉은 장막에 둘러싸인 병마영주가
 옥대를 매고 일산을 받고 검은 창 붉은 깃발이 늘어선 명사길로
 아, 순찰하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강릉도 백성이 의를 기리는 풍속을 따르니
 아, 왕화로 중흥하는 모습이 어떠합니까?19) <1장>

1장은 작품의 도입부로서 관동 지방의 절경을 묘사하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다. ‘바다가 겹겹, 산이 첩첩’은 관동 지방의 절경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이 구절은 관동 지방에 미칠 군주의 덕이 바다처럼 넓고 산처럼 깊음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곧 화자는 관동 지방의 절경 묘사를 통해 군주의 왕화가 변방인 관동 지방에까지 널리 퍼질 것을 암시하면서 작품의 분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관동 지방의 수려한 절경 아래에서 병마영주인 존무사는 ‘명사길’이 펼쳐진 바닷가를 행차하고 있다. 이곳을 지나 존무사의 집무실이 있는 안변²⁰⁾에 도착할 것이다. 안변에 이동하는 길에 화자는 목민관으로서 백성의 고단함을 보살펴주고 백성을 교화함으로써, ‘의(義)’를 기반으로 성립된 군주(君)-신하(臣) 관계 및 군주(君)-백성(民)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곧 군주를 대신하여 왕화를 전하러 온 목민관의 역할인 것이다. 화자는 목민관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존무사와 백성이 협력

19) 海千重 山萬疊 關東別境 碧油幢 紅蓮幕 兵馬營主 玉帶傾蓋 黑梁紅旗 鳴沙路 爲巡察景 幾何如 朔方民物 慕義趨風 爲 王化中興景 幾何如(『謹齋集』 권2, 「歌辭」, <關東別曲>)

20) 王以江陵道存撫使置司溟州去塞甚遠教移登州以鎮北方(『高麗史』 권34, 「世家」 34, <忠肅王> 甲寅 元年(1314) 春正月 甲寅)

하여 강릉도의 풍속이 순화되고 왕화 중흥에 이르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목민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화자의 선언적 다짐이라고 하겠다. 다음은 <2장>의 전문으로 팔경시 형식의 첫 수에 해당한다.

학성 동쪽에 있는 원수대, 천도, 국도
삼산 돌아 십주를 지나 금자라가 이고 있는 삼신산
안개 걷히고 붉은 노을 사라져 바람은 자고 파도는 잔잔하도다
아, 높이 올라 바라보는 창해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계수나무 돛대의 화려한 배에 곱게 단장한 미인들의 노랫소리와 피리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아, 경승지를 둘러보는 모습 어떠합니까!²¹⁾ <2장>

화자는 안변에 도착하여 강릉도의 순무 일정을 시작하였다. 안변의 학성을 시작으로 동쪽에 있는 절경은 선계와 같이 경이롭다. 붉은 노을이 사라진 저녁 무렵에 삼신산 중의 하나인 금강산에 올라간다. 그곳에서 안개가 걷힌 창해를 바라보니, 바람은 자고 파도는 잔잔하다. 세상이 고요한 가운데 신선이 살고 있다고 전하는 금강산에서 화자는 자신을 ‘신선’과 동일시했을 것이다. 이러한 환상을 경험한 화자는 지상계(A)와 선계(Not-A)의 중간 지대인 ‘경계(Ambiguous boundary zone)’에서 있다. 곧 경계는 현실계에 존재하고는 있으나 현실과 다른 시공간이 존재하는 공간이자 무의식 세계와 의식 세계를 횡단하는 공간인 것이다. 경계는 에드먼드 리치(Edmund Leach)의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그림 1>에서 빗금으로 표시한 부분에 해당한다.²²⁾ 이러한 공간 분할은 서수 <1장>에서 팔경시의 시작인 <2장>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신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3장> ~

21) 鶴城東 元帥臺 穿島國島 轉三山 移十洲 金麓頂上 收紫霧 卷紅嵐 風恬浪靜 爲登望 滄溟景 幾何如 桂棹蘭舟 紅粉歌吹 爲歷訪景 幾何如(『謹齋集』 권2, 「歌辭」, <關東別曲>)

22) <그림 1>은 에드먼드 리치(Edmund Leach)가 경계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그림을 활용한 것으로, 안축의 <관동별곡>의 공간적 배경으로 등장한 지상계와 선계의 성격을 반영한 것임을 밝힌다.(Edmund Leach, 『Culture and Communication』(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35쪽 <그림> 참조).

<6장>에서 선계에서 전개될 환상성을 창출하기 위해 처음부터 의도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림 1> <관동별곡> 2장에서의 공간 분할

화자는 지상계와 선계를 넘나들 수 있다. 그런데 이질적인 성격을 지닌 두 공간을 직접 왕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두 공간을 매개해주는 경계가 있는 것이다. 이 경계를 교통하기 위해서는 샤먼(shaman)과 같이 비범한 능력을 가져야 한다. 화자는 수기치인의 도가 완숙한 사대부이므로 비범한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에 화자는 계수나무 돛배를 타고 선계로 올라갈 수 있다. 곧 계수나무 돛배는 선계에서 현실 세계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교통수단(vehicle)²³⁾인 것이다. 화자가 계수나무 돛배를 타게 된 동기는 군주가 부여한 존무사로서의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1장>에서 선언했던 왕화중흥이 가능하다.

화자는 계수나무 돛대를 단 배를 타고 미인들의 노랫소리와 피리소리를 들으면서 선계로 오를 준비를 하게 된다. 계수나무 돛배가 하늘로 이륙하자, 화자는 선계에 올라갈 생각에 마음이 설레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이는 강릉도에 도착하여 본격적으로 순무를 시작하려는 존무사의 설레는 마음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3장>의 전문이다.

총석정과 금란굴의 기암괴석들

23) 교통수단(vehicle)은 나경수의 ‘비히클(vehicle)’ 개념을 차용한 것이다(나경수, 「원왕생가의 작가고」, 『국어국문학』 110(국어국문학회, 1993), 87쪽 참조).

전도암과 사선봉에는 푸른 이끼 낀 옛날 비석
 통족암²⁴⁾ 돌바위 기이한 형상은
 아, 천하 어디에도 없는 절경이구나
 옥비녀 꽃고 구슬 신발 신은 많은 삼천 식객을 이끌고
 아, 또 다시 찾아오실 그날이 언제입니까?²⁵⁾ <3장>

계수나무 돛배를 타고 금강산에서 출발한 화자는 선계로 이동하는 길에 하늘에서 통천의 총석정, 금란굴, 전도암, 사선봉 및 통족암을 내려다보고 있다. 그런데 통천의 한자명은 ‘通川’이지만, 음이 동일하면 통하므로 ‘通川’을 ‘通天’으로 전이할 수 있다. ‘通天’은 ‘하늘로 통한다.’는 뜻이니, 통천은 선계로 가기 위한 첫 관문임을 지시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화자는 통천의 상공에서 내려다보이는 총석정과 금란굴의 기암괴석, 전도암과 사선봉의 비석, 통족암의 돌바위를 천하의 절경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서 천하의 절경, 곧 산수의 아름다움을 알아주고, 이를 지켜줄 수 있는 목민관의 역할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개하기 위해 후반부에서 맹상군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삼천 식객은 맹상군(孟嘗君)을 따르던 천하의 유능한 선비들로 존무사를 보좌하는 수행원으로 비유될 수 있겠다. ‘옥비녀 꽃고 구슬 신발 신은’이라는 수식어는 수행원의 관원 신분과 단정한 모습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또한 여기에서 삼천 식객을 존무사의 수행원이라고 한다면, 마음이 너그럽다고 알려진 맹상군은 백성과 산수를 포용해야 할 존무사에 비유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자는 ‘또 다시 찾아오실 그날이 언제입니까?’라는 구절로 <3장>을 마무리하면서, 존무사가 자주 순행하여 덕치를 널리 펼 것을 당부하는 백성의 목소리를 전면에 내

24) 정우영은 ‘我也足’을 ‘감탄사’ 및 ‘감탄사+ 명사’로 해독된다고 하였다. ‘감탄사’로 해독하는 경우에는 ‘어야차, 아야차’로 파악된다. ‘감탄사+ 명사’로 해독하는 경우에는 ‘아야+ 발’로 해석된다고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곡의 『稼亭集(가정집)』에 수록된 <동유기(東遊記)>를 들어 ‘아픈 발 바위(痛足巖)’라고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정우영, 「경기체가 <관동별곡>의 국어사적 검토」, 『구결연구』 18(구결학회, 2007), 262~263쪽 발췌 및 요약).

25) 叢石亭 金欄窟 奇巖怪石 顛倒巖 四仙峯 蒼苔古碣 我也足 石巖回 殊形異狀 爲四海天下 無豆舍叱多 玉簪珠履 三千徒客(『謹齋集』 권2, 「歌辭」, <關東別曲>)

세우고 있다. 다음은 <4장>의 전문이다.

삼일포와 사선정, 기이한 외관과 형적
 미륵당, 안상의 모래톱, 서른여섯 개 봉우리
 밤이 깊고 물결이 잔잔한 속에 소나무 끝에 걸려 있는 조각달은
 아, 고운 모습 나와 비슷하오이다
 화랑 술랑 등이 바위에 새긴 붉은 여섯 글자는
 아, 오랜 세월이 지나도 오히려 분명합니다²⁶⁾ <4장>

화자가 탄 계수나무 돛배는 통천을 지나 고성의 삼일포에 도착하였다. 어느새 밤은 깊고 삼일포의 잔잔한 물결 속에 소나무 끝에 조각달이 비친다. 이러한 승경은 화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메시지의 내용은 전반부의 3행과 4행을 연결한 통사 구조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 구절의 통사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은 ‘③[물결이 잔잔한 속에 ②{소나무 끝에 걸려 있는 ①(조각달은 고운 모습이 나와 비슷하오이다)}]’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①에서 화자는 자신의 감정을 달에 이입하고 있다. 그런데 달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 하므로, 비영속성(非永續性)을 지니는 존재이다. 동시에 달은 깊은 밤에 먼 곳까지 밝게 비출 수 있는 광명(光明)의 존재이다. 화자는 존무사의 공무를 수행하는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 초순에 뜨는 조각달로 비유할 수 있겠다. 화자는 조각달이 보름달과 같이 온전한 모습을 하지 않지만 광명의 속성에 기인하여 먼 곳까지 비추고 있기 때문에, 조각달의 모습을 곱다고 여긴다. 이 맥락에서 광명은 존무사가 백성에게 베풀 덕치이자, 나아가 덕치를 통해 자기완성의 궁극적 목적인 명덕을 밝게 하는 것(明明德)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조각달 = 화자(존무사)’, ‘광명 = 덕치’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겠다.

26) 三日浦 四仙亭 奇觀異迹 彌勒堂 安祥渚 三十六峯 夜深深 波瀾瀾 松梢片月 爲古
 濫貌 我隱伊西爲乎伊多 迹卽徒矣 六字丹書 爲萬古千秋 尙分明(『謹齋集』 권2, 「歌
 辭」, <關東別曲>)

②에서 소나무는 예로부터 절개, 지조 및 충의를 상징하는 식물로 여겼다. 소나무의 표상을 미루어 보면, ‘소나무 끝에 걸려 있는 조각달’은 군주에 대한 충의를 받드는 존무사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구절에서 군주가 화자에게 신의를 베풀어 존무사로서의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통치권을 부여하였고, 화자는 이를 받들어 존무사로서의 사명감을 다하여 백성을 교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③에서 물결은 물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이나 모양을 의미한다. 이에 물은 끊임없이 움직여 대상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淨化)의 존재이다. 여기에서 정화의 대상은 화자의 명덕, 곧 본연지성인 것이다. 화자는 수신(修身)의 도를 닦아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물결의 잔잔함’은 수신(修身)의 도를 닦은 연후에 어느 것에 치우치지 않는 ‘항상심’이다. 이 항상심 위에서 존무사는 군주 및 백성과 관계를 맺고 치인이 가능하다. 곧 ①, ②의 행위는 ③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3행과 4행을 연결한 통사 구조에는 수기치인의 단계 및 존무사의 선정이 메시지의 내용으로 함축되어 있다. 화자는 자신의 목민(牧民)의식을 고려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시어의 배열 및 통사 구조를 치밀하게 구성하였다고 하겠다.

후반부에서 화자는 화랑 술량, 남량, 영량, 안상 등이 금강산에서 수련하고 사선봉을 다녀간 일을 들었다. 네 화랑이 바위에 새긴 여섯 글자²⁷⁾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오히려 분명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논의의 초점은 여섯 글자를 새긴 ‘바위’에 있다. 바위는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으므로 영속성(永續性)을 지닌다. 또한 바위는 물성의 견고함으로 말미암아 불변성(不變性)을 지닌다. 화자는 이 바위의 속성을 통해 전반부에서의 다짐, 곧 백성에게 덕치를 베풀어 백성이 살기 좋은 국가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굳게 약속하는 것[금석지약(金石之約)]이라고 하

27) 浦在高城北七八里 外有重峯疊嶂合抱 而內有三十六峯周列 洞壑清幽 松石奇古 中有小島 蒼石盤陀 昔四仙遊此 而三日不還 故得是名 水南 又有小峯 峯上有石龕安石彌勒像 峯之北崖石面 有丹書六字 永郎徒南石行云(『謹齋集』 권1, 「詩」, <三日浦詩>)

겠다. 이처럼 바위의 속성은 화자의 목민관으로서의 굳은 다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4장>의 시적 감흥을 더해 주는 기능을 돕고 있다. 다음은 <5장>의 전문이다.

선유담, 영랑호, 신비하게 청정한 골짜기 안에
 푸른 연잎 자라는 모래톱, 푸르게 빛나는 멧부리, 십 리에 서린 안개
 피어오르는 향기, 눈부신 파란 유리 물결에
 아, 배 띄우는 모습 그 어떠합니까!
 순채국과 농어회, 은실처럼 가늘고 눈 같이 희게 썰었네
 아, 양락이 맛있다고 한들 이보다 더하리오²⁸⁾²⁹⁾ <5장>

계수나무 뚝배는 간성의 선유담, 영랑호 등 두 호수 위에 도착하였다. 골짜기 안에 자리하고 있는 두 호수 및 주변 경치는 신선이 놀다갔다는 전설이 존재할 만큼 선계와 같이 신비로운 승경을 자랑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화자는 이 승경을 보자, 자신의 고향, 순흥에 있는 죽계천(竹溪川)이 저절로 떠올랐을 것이다. 죽계천은 소백산을 휘감아 돌며 죽계천의 투명한 물과 그 위에 서린 안개는 소백산의 풍광을 이루는데, 죽계천의 이러한 절경은 선유담 및 영랑호의 절경을 묘사한 표현과 유사하다.

화자의 고향 생각은 목민관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긴장에

28) 仙遊潭 永郎湖 神清洞裏 綠荷洲 靑瑤嶂 風煙十里 香冉冉 翠霏霏 琉璃水面 爲 泛舟景 幾何如 蕙羹鱸膾 銀絲雪縷 爲 羊酪豈勿參爲里古(『謹齋集』 권2, 「歌辭」, <關東別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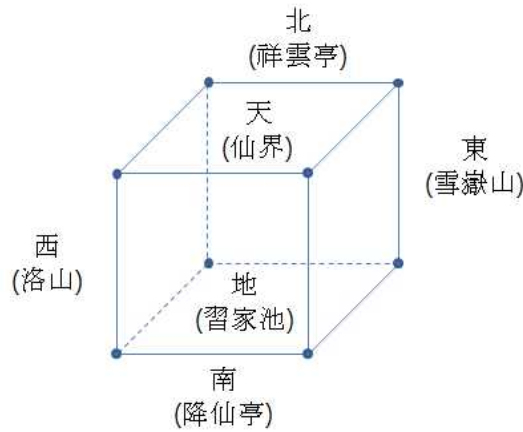
29) 원에서 유행하는 유제품인 양락(羊酪, 타락죽)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고향에서 먹던 순채국(蕙羹)을 잊지 못해 버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표현은, 이제현의 한시 <고향으로 돌아가고파(思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扁舟漂泊若爲情 四海誰云盡弟兄 一聽征鴻思遠信 每看歸鳥嘆勞生 窮秋雨鎖靑神樹 落日雲橫白帝城 認得蕙羹勝羊酪 行藏不用問君平(『益齋亂稿』 권1, 「詩」, <思歸>). 1320년 충선왕이 원에 머물 때 참소를 받고 토번에 귀양 가게 되자, 이제현은 충선왕을 따라가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파>를 지어 고향 생각을 읊었다. 육기(陸機)의 고사와 장한(張翰)의 고사는 사대부 문인의 문학에서 사향(思鄉)과 관련된 고사로 관용적으로 인용되지만, 안축의 <관동별곡>과 이제현의 <고향으로 돌아가고파>에서 보이는 표현 및 고사 인용의 유사성은 두 사람의 교유 관계와 관련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승경에 대한 감흥과 신흥사대부의 정치적 이념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는 고향의 죽계천으로 돛대를 돌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이다. 이에 <5장>의 후반부에서 육기(陸機)의 고사³⁰⁾ 및 장한(張翰)의 고사³¹⁾와 관련된 순채국(蓴羹)과 농어회(鱸膾)를 제시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은 <6장>의 전문이다.

설악의 동쪽, 낙산의 서쪽, 양양의 풍경
 강선정과 상운정이 남북으로 마주 선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자색 봉황을 탄 듯, 붉은 난조를 탄 곱고 아름다운 신선
 아, 주현을 다투어 희롱하는 모습 그 어떠합니까!
 고양의 술꾼들이 습가지의 술집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아, 사계절 즐겁게 놀아 봅시다³²⁾ <6장>

화자를 태운 계수나무 돛배는 양양에 도착하였다. 양양은 설악산과 낙산이 동서로, 강선정과 상운정이 남북으로 포진하고 있다.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의 위아래로 천지가 있는데, 천상계는 선계이고 지상계는 습가지(習家池)³³⁾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 30) 陸機詣王武子 武子前置數斛羊酪 指以示陸曰 卿江東何以敵此 陸云 有千里蓴羹 但末下鹽豉耳(『世說新語』, 「言語」 26)
- 31) 張翰字季鷹 吳郡吳人也 父儼 吳大鴻臚 翰有清才 善屬文 而縱任不拘 時人號爲 江東步兵 會稽賀循赴命入洛 經吳閭門 於船中彈琴 翰初不相識 乃就循言譚 便大相欽悅 問循 知其入洛 翰曰 吾亦有事北京 便同載即去 而不告家人 齊王罔辟爲大司馬東曹掾 罔時執權 翰謂同郡顧榮曰 天下紛紛 禍難未已 夫有 四海之名者 求退良難 吾本山林間人 無望於時 子善以明防前 以智慮後 榮執其手 愴然曰 吾亦與子採南山蕨 飲三江水耳 翰因見秋風起 乃思吳中菰菜 蓴羹 鱸魚 膾曰 人生貴得適志 何能羈宦數千里以 要名爵乎 遂命駕而歸(『晉書』 卷92, 「列傳」 62, <張翰>)
- 32) 雪嶽東 洛山西 襄陽風景 降仙亭 祥雲亭 南北相望 騎紫鳳 駕紅鸞 佳麗神仙 爲 爭弄朱絃景 幾何如 高陽酒徒 習家池館 爲 四節遊伊沙伊多(『謹齋集』 卷2, 「歌辭」, <關東別曲>)
- 33) 永嘉三年 出爲征南將軍 都督荊湘交廣四州諸軍事 假節 鎮襄陽 于時四方寇亂 天下分崩 王威不振 朝野危懼 簡優游卒歲 唯酒是耽 諸習氏 荆土豪族 有佳園池 簡每出嬉遊 多之池上 置酒輒醉 名之曰高陽池 時有童兒歌曰 山公出何許 往至高陽池 日夕倒載歸 茗芋無所知 時時能騎馬 倒著白接羅 舉鞭向葛疆 何如并州兒 疆家在并州 簡愛將也(『晉書』 卷43, 「列傳」 13, <山濤>)



〈그림 2〉 <關東別曲> 6장에서의 공간 인식

위의 <그림 2>와 같이, 정육면체의 사면과 상하에 <6장>의 공간적 배경인 사방천지를 배치시킬 수 있다.³⁴⁾ 이로써 정육면체는 우주를 내포하게 된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진 이곳에 선계에 있는 신선들이 태평성대(太平聖代)에만 모습을 드러내는 봉황³⁵⁾과 난조를 타고 내려왔다. 신선들은 각각 강선정과 상운정에서 거문고의 줄인 주현(朱絃)을 다투듯 연주하며 경연을 벌이고 있다. 곧 양양은 신선들이 찾아와서 태평성대의 풍류를 즐기는 선계인 것이다. 선계에 도착한 화자는 신선들의 풍류 장면을 목격함으로써 황홀경을 체험하게 된다.

화자는 후반부에서 신선과의 풍류가 최고조에 달하자, 선계에서의 경험을 지상계인 현실 세계에서도 실현시키고자 한다. 그래서 중국 호북성 고

34) 『淮南子』의 「齊俗」에서 우주(宇宙)에 대해 “상하사방의 공간을 우(宇), 지나간 과거에서 다가올 미래까지의 시간을 주(宙)이다(往古來今謂之宙 四方上下謂之宇)”고 하였다. 본고에서 『회남자』에서 제시한 우주의 개념에 따라 정육면체의 상하와 사면에 <관동별곡> <6장>의 공간적 배경인 천지와 동서남북을 대응·배치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35) 『書經』의 「益稷」에 “순임금이 소소(簫韶)를 연주하여 아홉 곡을 다 마치니 봉황이 와서 춤을 추었다(簫韶九成 鳳凰來儀).”라는 말이 있듯이, 봉황과 난조는 성인이 다스리는 태평성대에 나타나는 신령한 새(靈鳥)이다. <관동별곡>의 <6장>에서 화자는 순임금이 다스렸던 때와 같이 위정자는 백성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백성은 태평성대를 누리는 안정된 이상 정치를 펼치고자 하는 포부를 반영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의 습가지와 같이 근심을 잊고 풍류를 즐기는 이상향을 지상에도 건설하고자 하는 자신의 포부를 호기롭게 드러내고 있다. 이로써 화자는 <5장>에서 느꼈던 목민관의 소임에서 오는 부담감과 고뇌를 떨쳐낼 수 있다. 또한 화자는 자신이 소망하는 이상향이 지상에 실현되면, 종국에 정육면체의 사방천지는 구분 없이 조화와 합일의 상태를 이루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다. 이러한 상태가 수기치인의 최종 단계인 ‘평천하’를 실현한 것이다. 이처럼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도의 근원을 파악하고 태평성대를 구가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힘쓰는 것이 바로 목민관의 임무이다. 화자는 선계에서 목민관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상 세계를 체득함으로써, 군주가 존무사에게 부여한 신성한 권한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다음은 <7장>의 전문이다.

삼한의 예의, 천고의 풍류를 간직한 강릉 옛 고을
 경포대와 한송정은 달이 밝고 바람이 맑은데
 해당화 핀 길, 연꽃 핀 연못에서 좋은 시절에
 아, 노닐며 감상하는 모습 그 어떠합니까
 등명사 누대에서 불 밝히고 오경을 알리는 종을 친 뒤에
 아, 해돋이 모습이 그 어떠합니까!³⁶⁾ <7장>

선계에서 신선의 풍류를 목격한 화자는 존무사의 권한을 획득하고 태평성대를 지상에 실현시키고자 한다. 오경은 만물이 깨어나는 시간이자, 화자는 오경을 알리는 종이 울리기 전에 지상계로 내려왔다. 계수나무 뚝배는 경포대와 한송정이 있는 강릉으로 화자를 데려다 주었다. 강릉을 ‘예의와 풍류를 간직한 고을’이라고 표현한 것은, 1314년 이전까지 강릉도존무사가 집무를 보았던 관아가 강릉에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자는 강릉의 옛 명성에 걸맞게 강릉에 아직 덕치의 기운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36) 三韓禮義 千古風流 臨瀛古邑 鏡浦臺 寒松亭 明月清風 海棠路 菡萏池 春秋佳節 爲遊賞景 何如爲尼伊古 燈明樓上 五更鍾後 爲日出景 幾何如(『謹齋集』 권2, 「歌辭」, <關東別曲>)

희망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강릉에서부터 덕치를 펼치고자 했을 것이다. 또한 강릉의 경포대와 한송정은 달이 밝고 바람이 맑아 주변 경치가 더욱 아름답다. 선계에서의 여흥이 남은 화자는 승경이 아름답고 예의와 풍류를 간직한 강릉에서부터 선정을 베풀어서 강릉 승경의 아름다움을 지키고자 하였을 것이다.

등명사 누대에서 오경을 알리는 종이 울린 후에 해가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서 ‘해돋이’는 새날을 맞이함을 의미하는데, 이때 ‘새날’은 다음과 같이 중의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자연의 시간 질서에 따르면 새날은 지상계에서 맞이하는 이튿날이다. 곧 새날은 강릉도의 타 지역을 순무해야 하는 일정이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둘째, 해돋이에서 해가 얼굴을 조금씩 내미는 것처럼 새날은 태평성대가 서서히 시작되는 날이다. 곧 새날은 존무사가 현실 개혁의 의지를 실천한 후에 도래하는 세상이자 군주의 교화로 밝아진 세상인 것이다. 다음은 <8장>의 전문이다.

오십천, 죽서루, 서촌 팔경
 취운루, 월송정, 십 리에 이어지는 푸른 솔밭 속에서
 옥저를 불고 가야금을 타며 청아한 노래를 부르고 우아하게 함께 춤을 추
 면서
 아, 정다운 손님을 맞이하고 보내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망사정 위에서 만 리나 넘실거리는 푸른 파도
 아, 갈매기도 정다운 손님처럼 반가워라³⁷⁾ <8장>

화자는 새날의 일정을 삼척의 오십천, 죽서루, 서촌에서 시작하고 있다. 화자는 삼척에서 울진의 취운루로 행차한 후에 평해의 월송정으로 발길을 돌렸다. <8장>에서 화자가 순무하는 삼척, 울진, 평해 등 이들 세 지역은

37) 五十川 竹西樓 西村八景 翠雲樓 越松亭 十里青松 吹玉簫 弄瑤琴 清歌緩舞 爲 迎
 送佳賓景 何如 望槎亭上 滄波萬里 爲 鷗伊鳥 蘇甲豆斜羅(『謹齋集』 권2, 「歌辭」,
 <關東別曲>)

강릉의 아래에 위치한다. 따라서 강릉을 중심으로 근처 바닷가 지역으로 덕치가 퍼져 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한 연후에 존무사의 덕치는 산간 지역으로 서서히 퍼져 갈 것이다. 이처럼 화자는 지리적 조건을 활용하여 바닷가 지역에서 산간 지역으로 덕치가 점진적으로 행하고자 하는데, 화자의 이러한 의도는 <관동별곡>에서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증거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1장>에서 관동지방의 형세를 표현하기 위해 ‘바다가 겹겹, 산이 첩첩’이라고 노래한 구절에서, 바다 다음으로 산을 언급하였다. 둘째, <8장>에서 강릉의 근해 지역을 순방한 이후에 <9장>에서 산간 지역인 정선으로 순무지를 옮겨 갔다.

한편, 평해의 월송정에서는 ‘정다운 손님’인 존무사 일행을 위해 주연이 마련되었다. 주연에서 가무를 즐기면서 흥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 이때 백성이 부르는 ‘청아한 노래’는 태평가(太平歌)일 것이며, 백성은 태평가에 맞추어 우아하게 춤을 추는 것이다. 이에 흥겨운 분위기가 고조되자, 화자는 취흥 속에 갈매기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것은 <6장>에서 목민관으로서의 고뇌를 해소하고 <7장>에서 새롭게 마음을 다잡은 화자가, 태평성대를 서서히 이룩하는 과정에서 갈매기와 같은 산수의 경물을 맞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화자의 심적 여유는 부임지의 산수도 다스려야 하는 목민관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데서 오는 자부심이라고 하겠다. 다음은 <9장>의 전문이다.

십 리에 펼쳐진 강, 천 층의 절벽, 병풍을 두른 듯 거울이 맑은 듯
 풍암에 기대고 수혈을 지나 비룡산의 정상에 올라서
 좋은 술을 기울이고 용빙봉에서 불어오는 6월 시원한 바람을 맞으니
 아, 더위를 피하는 이 모습 어떠합니까!
 중국의 주진촌처럼 대를 이어 무릉의 풍물 대대로 전하듯
 아, 좋은 풍속을 자손만대로 전하는 모습 어떠합니까!³⁸⁾ <9장>

38) 江十里 壁千層 屏圍鏡澈 倚風巖 臨水穴 飛龍頂上 傾綠蟻 聳氷峯 六月清風 爲避暑景 幾何如 朱陳家世 武陵風物 爲 傳子傳孫景 幾何如(『謹齋集』 권2, 「歌辭」, <關東別曲>)

화자는 바닷가를 거쳐 산간 지역인 무릉(武陵)에 도착하였다. 무릉은 도원(桃源)에서 나온 말로, 도원은 정선의 옛 지명이다. 화자는 비룡산의 정상에 올라 절경의 기운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크고 넓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호연지기(浩然之氣)’로 일관된다. 이로써 화자는 정선에 덕치를 베풀기에 앞서, 자신의 마음을 수양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화자는 좋은 술과 용빙봉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으로 6월 한낮³⁹⁾의 더위를 이기고자 하는 호탕한 정회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비룡산의 정상에서는 정선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을 내려다 볼 수 있다. 그런데 <관동와주>에 수록된 <도원역을 지나며(過桃源驛)> 2편⁴⁰⁾을 보면, 정선에는 사람이 많이 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도원역을 지나며(過桃源驛)>의 전편에서는 ‘반도 남지 않은 주민들(居民半不存)’, 후편에서는 ‘산 아래 쓸쓸한 두어 집 민가(名是桃源實是秦)’라는 표현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정선은 깊은 산골에 위치해 있고, 뿐만 아니라 <인삼탄>과 <소금 굽는 집>에서 보이는 가렴주구(苛斂誅求)가 정선에까지 미쳤다면 정선에 사람이 드문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더위는 원 및 고려의 이중국가 체계에서 발생한 백성의 고통을, 좋은 술과 용빙봉에서 부는 바람은 백성의 고통을 달래는 수단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화자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 백성이 겪는 현실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위정자의 마음가짐을 다지는 것이다.

그리고 화자는 장차 정선이 번창해지기 위해서는 미풍양속을 후손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소학(小學)』의 「선행(善行)」

39) <9장>의 4행에서 ‘避暑景’을 근거로 정선 비룡산에서 보내는 시간대를 ‘낮’이라고 본다. 더위는 밤에 피할 수 있지만, 지표면의 온도가 점점 상승하는 낮(특히, 오후)에는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7장>과 <9장> 사이에 배치된 <8장>은 시간상 새벽과 낮의 중간 무렵인 이른 낮, 곧 오전 무렵이 될 것이다. 따라서 <7장>, <8장>, <9장>에서 시간의 흐름은 ‘새벽 → 낮’이 되겠다.

40) <관동와주>에 수록된 <도원역을 지나며(過桃源驛)> 2편은 작품명은 같으나, 그 형식은 단편이다. 논의의 편의상 ‘小亭臨大道’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시는 ‘전편’으로, ‘山下蕭條數戶民’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시는 ‘후편’이라고 명명함을 미리 밝힌다.

에 수록된 주진촌(朱陳村)의 고사⁴¹⁾를 후반부에서 제시하고 있다. 주진촌은 주씨 집안과 진씨 집안이 통혼을 하여 이룬 집성촌으로 미풍양속을 잘 지키며 일가의 칠백 명이 화목하게 살았다고 한다. 곧 주진촌은 무릉도원인 것이다. 이처럼 화자는 미풍양속을 통해 가족 간에 화목하고, 나아가 향촌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아 국가 전반의 안정을 확립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를 기대한 화자는 경세론의 실천 대안으로 신흥사대부의 수양 텍스트이자 유교 교육의 초학자용 교재인 『소학』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소학』에서 출발하는 유교 교육을 중시하는 태도로서 <양양의 새 향교 기문>의 내용과 상통한다고 하겠다.

이처럼 정선은 강릉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 지역이므로, 목민관의 손길로 민생 안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화자는 정선에 들어서서 마음을 새롭게 다지면서 <9장>에서 전반부에서는 수신을, 후반부에서는 치인을 노래하고 있다. 이는 <1장>에서 왕화중흥경(王化中興景)을 노래한 것과 그 내용이 일치한다. 이처럼 <1장>과 <9장>은 내용상 수미상관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군은을 베풀고 후손에게 미풍양속의 전달을 권하는 훈도적인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작품을 차분하게 마무리하고 있다.

3.2. <관동별곡>의 구조

<관동별곡>은 경기체가 위에 팔경시의 형식을 차용하여 ‘관동 지방의 왕화 중흥의 실현’으로 일관되는 안축의 목민의식을 구현하고 있다. <2장> ~ <9장>은 관동 지방을 소우주로 간주하고, 팔경시 형식 위에 이질적인 공간과 시간의 순차적 흐름을 융합시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다음의 <표>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41) 江州陳氏 宗族 七百口 每食 設廣席 長幼以次坐而共食之 有畜犬百餘 共一牢食 一犬 不至 爲之不食(『小學』, 「善行」)

구 분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화자의 여정	안변	통천	고성	간성	양양	강릉	삼척 울진 평해	정선
공간의 이동	경계	선계				지상계		
시간의 흐름	저녁	밤				새벽	낮	

<표> <관동별곡>의 팔경시 형식에 나타난 공간의 이동 및 시간의 흐름

위의 <표>는 <2장> ~ <9장>의 팔경시 형식에서 나타난 화자의 여정, 공간의 이동 및 시간의 흐름을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가 순무하였던 지역의 승경에 따라 그가 인식한 공간의 성격 및 시간의 흐름이 달리 나타난다. <관동별곡>의 공간과 시간이 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관동별곡>에서 공간의 이동이 갖는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공간은 이질적인 성격을 지닌 지상계, 선계 및 경계로 구분된다. 화자는 ‘백성 순무’라는 목민관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태평성대를 이룩한 ‘선계’를 착안했다. 여기에서 선계에 들어가기 위해 ‘경계 → 선계 → 지상계’라는 공간 이동을 설정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화자는 8개의 장에 전개된 공간을 크게 셋으로 분할하였다. <2장>은 경계, <3장> ~ <6장>은 선계, <7장> ~ <9장>은 지상계로 구분한 것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팔경시 8개의 장을 4장씩 나누어 각각 선계와 선계 출입 전후의 세계로 구분함으로써, 작품에서 공간 배치의 형평성을 유지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한편, <3장> ~ <6장>에서 화자의 선계 체험은 부임지 안변에 도착한 첫날에 화자가 꾸었던 ‘꿈’이고 선계는 꿈속에 등장한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꿈 기제는 폐단이 심한 현실 세계에서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태평성대를 이루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 및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둘째, 화자는 지상계에서의 왕화중흥을 강릉을 시작으로 강릉의

근거리 지역(<8장>)에서부터 원거리 지역(<9장>)으로 확대·실현하고자 한다. 이것은 화자가 존무사의 옛 관아가 있었던 강릉부터 덕치를 베풀면, 향풍순화가 주변 지역으로 점차 일어나고 중국에는 강릉도 전체로 퍼져 나가기를 전략적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다음으로, <관동별곡>에서 시간적 질서가 갖는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지상계에서 선계와 같은 이계(異界)를 넘나들기 위해 지상계의 시간을 밤으로 설정했다. 그래서 선계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3장> ~ <6장>은 밤인 것이다. <2장> 및 <7장> ~ <9장>은 각각 선계 출입 전후의 시간인데, <2장>은 경계에서의 시간으로 고요한 저녁이고 <7장> ~ <9장>은 지상계에서 맞이한 새날, 곧 이튿날의 새벽과 낮이다. 그리하여 <관동별곡>에서의 시간을 ‘저녁 → 밤 → 새벽 → 낮’과 같이 이틀로 구성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3장> ~ <6장>이 화자가 꿈에서 경험한 선계에서의 일이라고 한다면, 밤은 화자가 지상계에서 잠든 시간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둘째, 지상계에서의 시간은 <7장>에서 새벽에서 시작하여 <9장>에서 낮으로 종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을 새날의 낮으로 종결한 설정은 낮의 밝고 진취적인 이미지를 통해 왕화중흥이 지속될 것을 암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3장> ~ <6장>에서 밤에 선계를 방문했던 체험이 일회성을 띠는 신이하고도 특별한 사건임을 알리고, 동시에 선계에서 획득한 존무사의 권한을 신성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관동별곡>의 시공간 구조를 종합적으로 보면, 팔경시의 6수에 해당하는 <7장>에서 작품의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숫자 ‘6’은 『주역(周易)』에서 ‘땅’을 상징하는데⁴²⁾, 팔경시의 6수인 <7장>에서 화자는 지상계에 도착하였고 지상계에서 새날이 맞이하였다. 곧 <7장>에서 공간의 이동은 상승에서 하강으로, 시간의 흐름은 어둠에서 밝음

42) 天一地二 天三地四 天五地六 天七地八 天九地十 天數五 地數五 五位相得而 各有合 天數二十有五 地數三十 凡天地之數 五十有五 此所以成變化而 行鬼神也(『周易』, 「繫辭上傳」 9)

으로 그 이미지가 전환된 것이다. ‘상승에서 하강’은 경계에서 선계로 상승하였다가 선계에서 지상계로 하강하는 것인데, 화자가 선계를 목견한 후에 지상계로 내려와 왕명을 받들어 백성을 교화하고 유교적 이상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어둠에서 밝음’은 밤에 선계를 본 후 지상에 도착하니 날이 점차 밝아진 것인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왕화가 널리 퍼짐으로써 현실 문제를 개혁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지를 형상화한 것이다.

이처럼 작자는 철저한 계산을 통해 팔경시 위에 소우주의 공간 및 시간을 배치함으로써, 완성된 작품 구조를 형성하고 왕화중흥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때 <관동별곡>의 소재인 관동 지방의 승경은 즉흥적으로 예찬하는 일차적인 자연이 아니라, 사대부의 시각에서 관조하는 이차적인 자연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 이상의 내용을 미루어 보면, <관동별곡>의 유기적 구성은 작자 안축의 뛰어난 창작 능력뿐만 아니라 학문에 대한 깊은 조예, 시류를 대처하는 문제해결능력 및 민본 사상에 기초한 목민의식이 한데 응축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하겠다. 또한 <관동별곡>에서 선계에서의 신이한 체험 및 새날의 설정은 군주로부터 부여받은 목민관의 권한이 신성함을 보여준다. 이것은 동시에 군주를 대신하여 강릉도 백성을 돌보고 왕화중흥을 이루어야 하는 존무사의 임무 또한 성스러운 것임을 나타낸다. 이로써 신흥사대부는 당대에 정치 참여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개혁 정치의 주체 세력인 신흥사대부의 자부심이 발로되며, 경기체가의 향유 계층인 신흥사대부가 <관동별곡>의 여흥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4. 맺음말

목민관은 백성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기 위해 먼저 수신한 연후에 타에 모범을 보이고 자신이 목견한 지방의 현실 문제를 개선하며 선정을 베풀어야 한다. 이것은 곧 백성의 부모인 목민관에게 요구되는 자질인 것이다. 정치적·경제적 폐단이 격심했던 고려 후기 원지배기에 안축은 목민관의 자질과 직무 능력을 갖춘 전형적인 신홍사대부로서 유교적 덕치의 구현을 통해 백성의 안정된 삶을 지향하였다.

안축의 목민의식은 그가 창작한 경기체가 <관동별곡>에 구현되어 나타났다. 그런데 안축의 <관동별곡>을 논의한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안축의 목민의식의 저류를 형성하는 그의 정치사상과 경제론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다. 본고는 이 점에서 문제의식을 인식하고, 안축의 정치사상과 경제론을 구명하고 <관동별곡>에 구현된 그의 목민의식을 검토하였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안축이 관동 지방의 승경을 표현하기 위해 당대의 신홍사대부 계층이 향유하였던 팔경시를 <관동별곡>의 형식에 관습적으로 차용하였음을 전제하고, 작품의 내용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먼저, 안축의 정치적 사유가 원대 성리학파 맹자의 향산론 및 왕도정치론에 기반하고 있었음을 도출하였다. 안축이 고려 후기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폐단에 있다고 지적했음을 알았다. 그는 신홍사대부로서 책무의식을 느끼고 정치에 참여하여 당대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는데, 이것은 그의 지적 추구의 결과임을 알았다. 안축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교적 왕도 국가의 실현’을 정치 모토로 삼고, 자신의 경제론을 ‘농업을 통한 양민의 경제적 자립의 확보 → 양민의 정착 생활 및 신분 유지 → 유교 교육을 통한 수기치인 및 관학으로서의 성리학의 진흥 → 성리학적 정치론을 표방하는 정치 세력의 양성 → 유교적 국가 질서의 확립’과 같이 단계적으로 설계했음을 살폈다.

다음으로, 안축이 <관동별곡>에서 자신의 목민의식을 형상화하기 위해

당대 신흥사대부가 향유하였던 팔경시 형식을 관습적으로 차용하였음을 살폈다. <관동별곡>은 전체 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품 전체를 총괄하는 서수(序首) <1장>과 관동 지방의 여덟 절경을 노래한 팔경시(八景詩) 8개의 장(<2장> ~ <9장>)으로 크게 구분하여 내용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8개의 장이 ‘경계(저녁) → 선계(밤) → 지상계(새벽 → 낮)’과 같이 이질적인 성격을 지니는 공간과 시간의 순차적인 흐름이 융합되어 유기적인 구성을 갖추었음을 확인하였다. 작품의 완성된 내용과 구조를 미루어 <관동별곡>의 소재로 등장하는 관동 지방의 절경은 성리학적 사대부의 시각에서 관조하는 이차적인 자연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선계에서의 신이한 체험과 지상계에서의 새날의 설정을 통해 군주로부터 부여받은 존무사의 권한이 신성하고, 군주를 대신하여 왕화중흥을 이룩하고자 하는 존무사의 임무가 성스러운 것임을 알았다. 이로써 안축의 <관동별곡>이 신흥사대부의 관료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참고문헌

『高麗史』

『謹齋集』

『益齋亂稿』

『論語』

『孟子』

『世說新語』

『書經』

『小學』

『資治通鑑』

『晉書』

『淮南子』

고혜령, 「안축의 활동과 사상」, 『고려후기 사대부와 성리학 수용』, 일조각, 2002.

김동욱, 「「관동별곡」·「죽계별곡」과 안축의 시문학」, 『반교어문연구』 1, 반교어문학회, 1988, 79~119쪽.

김인호, 『고려후기 사대부의 경세론 연구』, 혜안, 1999.

나경수, 「원왕생가의 작가고」, 『국어국문학』 110, 국어국문학회, 1993, 67~90쪽.

도현철, 「안축의 대책문과 이민족 대책」, 『한국사상사학』 38, 한국사상사학회, 2011, 57~88쪽.

박경주, 「고려후기 문학 담당층의 전개양상과 경기체가」, 『국제어문』 25, 국제어문학회, 2002, 33~57쪽.

변숙희, 「원대 과거제와 고려진사의 응거 및 수관」, 『동양사학연구』 104, 동양사학회, 2008, 121~154쪽.

- 전경원, 『소상팔경-동아시아의 시와 그림』, 건국대학교출판부, 2007.
- 정무룡, 「안축의 <관동별곡> 반추」, 『한민족어문학』 47, 한민족어문학회, 2005, 197~242쪽.
- 정우영, 「경기체가 <관동별곡>의 국어사적 검토」, 『구결연구』 18, 구결학회, 2007, 251~288쪽.
- 천혜봉, 「조선조의 을해소자체목활자본 《御試策》」, 『서지학연구』 15, 서지학회, 1998, 23~49쪽.
- 최용수, 「안축의 <관동별곡>에 대하여」, 『배달말』 23, 배달말학회, 1998, 251~282쪽.
- 한창훈, 「근재 안축(1282~1348)론」, 『우리어문연구』 14, 우리어문학회, 2000, 187~214쪽.
- Edmund Leach, 『Culture and Communic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투고일 : 2013년 1월 1일, 심사 : 2013년 1월 16일~2월 13일, 게재확정 : 2월 13일

<Abstract>

The consciousness of governing the people in An Chuk's Gwandongbyeolgok

Kim, A-yun

An Chuk was one of the newly emerging confucian bureaucrats who had qualification and business ability of local governor in the late of Goryeo dynasty. He aimed at confucian rule of Virtue and the stabilization of the people's livelihood. He regards the consciousness of governing the people, which is the core of the theme. And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Gwandongbyeolgok is focused on the figuration of the theme.

I tried to analyze the political thought and governance theory of An Chuk and the consciousness of governing the people in Gwandongbyeolgok. The basis of political thought of An Chuk lies on Neo-confucianism in Yuan Dynasty, Mencius fixed property theory and the kingcraft politics theory. An Chuk found that the problems of the late of Goryeo dynasty were due to indictments of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al policies.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he suggested his motto the realization of confucian kingcraft politics. Also he designed governance theory by stage; peasants for financial independence by increas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 people's settlement life and keeping their position → culturing self and governing the people by confucian ethics education, promotion on Neo-confucianism as a government scholar → the newly emerging confucian bureaucrats training → a well-ordered confucian state.

I considered that Gwandongbyeolgok's poetry form traditionally was appropriated an aesthetic senses of the eight scenes poems(Palgeongsi) which the newly emerging confucian bureaucrats created and enjoyed at that time. Gwandongbyeolgok is consisted of 9 stanzas, the first stanza is implicated in this work and the form of Palgeongsi is embodied from the second stanza to the ninth stanza. I revealed that the Palgeongsi section is assimilated with different spaces and sequential time. This was analyzed by 'Ambiguous boundary zone(evening) → Not-A(night) → A(dawn → day)'. The Palgeongsi section is organically composed of 8 stanzas in Gwandongbyeolgok. Thus, the scenery of Gwandong in this work can be understood as a secondary nature that saw it from confucian bureaucrats point of view. Meanwhile, I grasped that political power and duty of local governor from his king were sacred through the establishing of dreamlike experience in Not-A and a new day in A. Thus, I concluded that An Chuk's Gwandongbyeolgok is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confucian bureaucrats.

Key words : Kyonggichega, Gwandongbyeolgok, An Chuk, the eight scenes poems(Palgeongsi), the consciousness of governing the people

